

코스피	코스닥
2593.27	763.88
(-56.51)	(-10.61)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2.811	1316.80
(-0.015)	(-1.80)

반도체 뿔뿔... 일평균 수출 역대 최대, 對中 무역 흑자

9월 수출 587.7억달러... 7.5% ↑ 일 평균 29.4억달러로 '사상 최대' 반도체 3개월 만에 최대 실적 경신 車·선박·무선통신기기 등도 효과 對中수출 117억달러... 6.3% 증가

지난달 수출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가 각각 12개월, 16개월째 이어졌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영향이 컸다. 일평균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대 중국 무역수지는 7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587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9월 중 1위 실적으로 올해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특히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인 29억4000만달러(+12.9%)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37.1%)를 기록, 6월 이후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11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컴퓨터 수출은 132.0% 증가한 15억달러로 9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19억달러(+19.0%)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조업일수 1일 감소에도 전년대비 4.9% 증가한 55억달러를 기록,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선박 수출은 76.2% 증가한 24억달러를 기록, 증가율이 2개월 연속 50%를 초과했고, 바이오헬스 수출도 9.9% 증가한 12억달러로 3개월 연속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유화 품목 수출의 경우 유가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올해 9월 배럴 당 73.52달러로 1년 전보다 21.2% 하락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 중국 수출은 반도체·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증가하며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인 117억달러(+6.3%)를 기록했고, 대 중국 무역수지는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7개월 만에 흑자(+5억달러)로 전환됐다.

대 미국 수출은 역대 9월 중 최대치인 104억달러(+3.4%)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 EU(유럽연합) 수출은 5.1% 증가한 60억달러로,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95억달러(+0.6%)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대CIS(10억달러, +8.2%)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동으로의 수출(16억달러, +15.5%)도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9월 수입은 원유(-11.6%), 가스(-0.6%) 수입 감소로 에너지 수입이 104억 달러(-8.4%)로 감소한 가운데 2.2% 증가한 521억2000만달러다. 이로써 9월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66억6000만달



지대지 미사일 현무-5 앞 지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며 지대지 탄도 미사일 현무-5 앞을 지나고 있다. 현무-5는 이날 송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민간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뉴시스

리 흑자를 기록하며 16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9월에는 일평균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분기 기준 수출실적도 올해 들어 매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어 2024년 수출이 '상고하고'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능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北 핵 사용 기도시 정권종말 한미동맹 결연·압도적 대응”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尹대통령 고강도 대북 메시지 발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 IV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3년 연속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고, 지난해에 이어 시가행진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및 순국선열, 장군원로, 예비역, 주한미군과 유엔사장병 등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됐다”면서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

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길,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GPS 교란 공격 등 도발과 ‘적대적 두 국가론’, 북러군사협력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이에 기반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의 복무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략사령부부대기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가 있었고, 기념사 후에는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전 장병 및 장비 분열이 뒤따랐다.

/서예진 기자 syj@

은행, 대출 이자수익에 역대급 실적 예고

대출금리 인상에 이자이익 증가 예금금리는 떨어져 예대금리차 ↑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거침없이 오르던 서울·수도권 집값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해서다. 또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의 올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4조6244억원으로 1년 전(4조4422억원)과 비교해 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별로 보면 KB금융그룹의 3분

기 순이익 추정치는 1조398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9% 늘고, 신한금융은 1조3483억원으로 같은기간 13.1%, 하나금융은 1조271억원을 7.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은행, 대출금리 인상에 이자이익 ‘쑥’

3분기 실적이 늘어난 배경에는 가계부채 증가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4월 5조원을 시작으로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4월 4조5000억원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2000억원 ▲7월 5조6000억원 ▲8월 8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늘어난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압박에 높은 금리로 판매됐다. 가계대출 금리는 은행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한다.

가계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7월초 3.490%에서 8월초 3.243%, 9월 27일기준 3.207%로 떨어졌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도 7월 3.42%에서 8월 3.36%로 내렸다.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지만 대출금리를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추경호 “이재명 선고 다가올수록 선동 심화” /사진 뉴시스
▲ 문승우 도의장,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 회로 이관 등 건의

▲ 김정은, 중 국경절 맞아 시진핑에 축전... “친선관계 더 발전될 것”
▲ 북, 국군의 날 ‘미 폭격기 B-1B’ 전개 가능성에 “상용 행동 취할 것”



▲ 민주 법사위원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출석해야” /사진 뉴시스
▲ 성보민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위원장 임명